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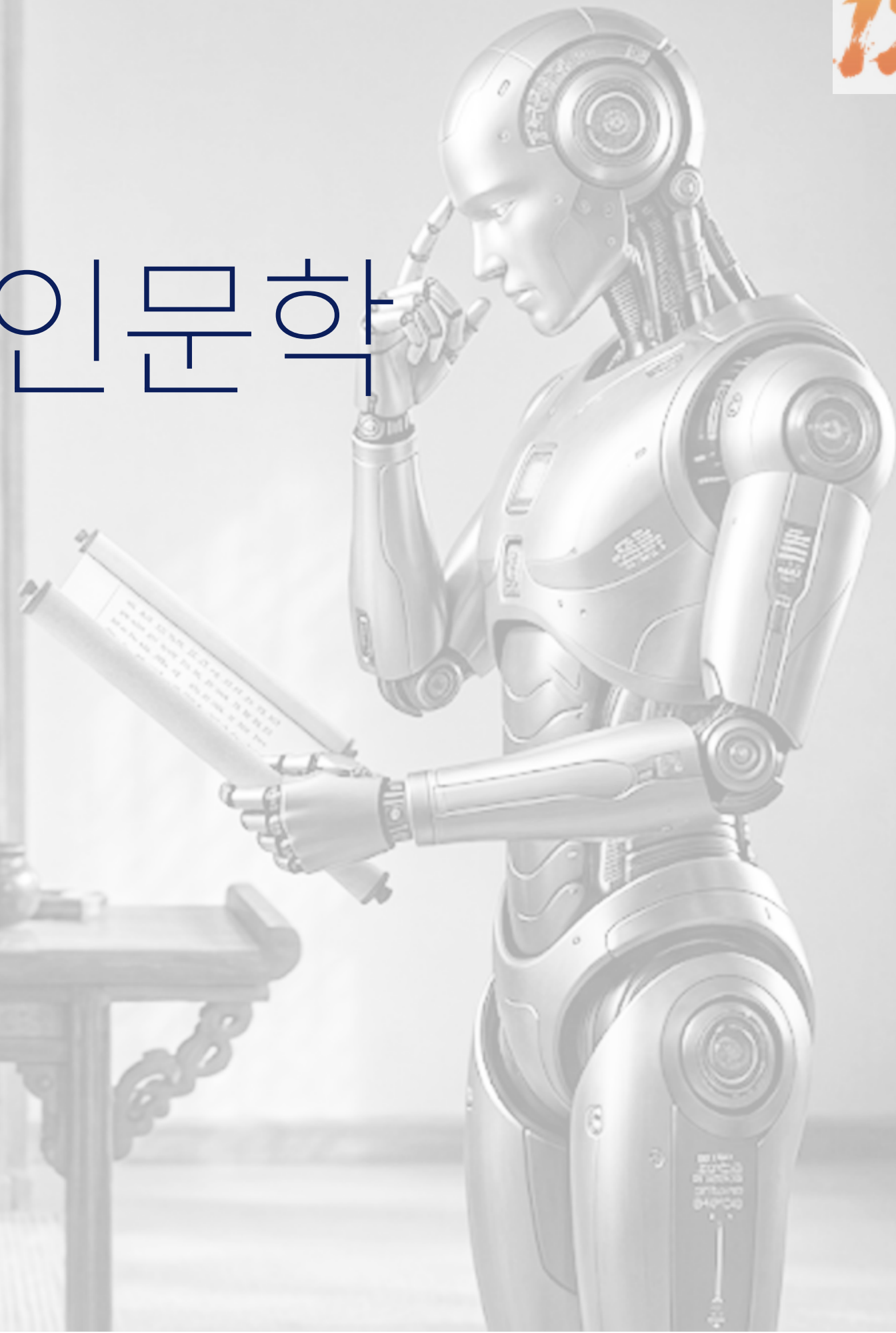
AI를 가르치는 인문학

고전연구자의 새로운 역할

김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Digital Curator · 전통문화연구회장



Intro

인공지능이 한문 번역과 지식 검색까지 수행하는 시대에, 고전연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AI를 가르치는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AI 시대 고전학의 존재 이유와 실천 방향을 제안한다.

고전연구자는 더 이상 단순한 번역자나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AI가 인간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전 지식을 구조화하고 해석 원리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발표에서는 실제 “AI 고전번역학” 교육 사례와 AI 협업 해석 도구(CCTI), XML·DB 기반 고전 지식 구조화 작업 등을 소개하며, AI와 인간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도 인간이 자기주도적 삶과 인문학적 성찰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고전학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한다.

Contents

목차

- 01 AI 시대, “고전인문학”이 당면한 문제
- 02 우리가 잊었던 “고전인문학”의 실체
- 03 “미래 인문학”으로 가는 길
- 04 “AI 고전번역학”: 미래 인문학을 위한 실천 훈련
- 05 미래의 고전학과 고전학자

AI의 능력에 당황하는 고전문학자

현대 한문고전학자의 역할

- 한문고전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일
- 한문고전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
- 고전의 내용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

그런데 이제,

AI가 한문 고전을 번역하고 주석가의 해석을 비교하는 시대

한문고전 연구자의 전문성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

한문 잘하는 AI의 등장: 고전문학의 위기인가?

01 한문 잘하는 AI의 등장은 일차적으로 “고전문학자”의 위기이지 “고전문학”의 위기는 아니다.

대중은 AI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더 쉽게 고전을 이해하고 더 다양하게 고전을 활용할 수 있다.

02 그러나 전문 연구자가 AI에 밀려 퇴출된다면, 고전문학은 “지식·정보”로만 남고, “의미·가치를 탐구하는 실천”이 소멸할 수 있다.

- ※ 인문학의 생명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호기심과 문제의식”과 “그 답을 찾으려는 의지와 열정”.
- ※ 인간이 인문학적 탐구를 하는 이유는 질문하고 길을 찾는 실천적 행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

03 AI 발전이 초래한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의 과잉”이 인간의 주체적 지적 탐구를 시들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 그렇다면 이것은 “AI에 의한 고전문학의 위기” →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공자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논어의 첫 구절에는 인문학의 실체를 설명하는 세 가지 요소가 언급되어 있다 — 學 · 習 · 說(悅)

學

학 — 지식의 습득

지식을 얻는 것

習

습 — 실천

그 지식과 더불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실천

悅

열 — 삶의 기쁨

그 실천을 통해 내가 얻는 삶의 기쁨

학문은 學 → 習 → 悅의 순환적·점증적 사이클. “學”만 잘라내어 학문이라 한다면...

→ “學”의 영역

강자는 단연 AI. 인간 연구자는 점점 더 무력해질 것이 자명.

→ “習·悅”의 영역

AI가 인간과 경쟁할 수도, 경쟁할 리도 없다.

AI 앞에 당황하는 고전인문학자의 불안은 사실상

고전인문학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않고 “學”의 영역에만 갇혀 있던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AI 시대의 인문학: 고전인문학의 복권 — 習(습)과 悅(열)의 회복

다산 정약용 주석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學所以知也, 習所以行也, 學而時習者, 知行兼進也. 後世之學, 學而不習, 所以無可悅也. (정약용, 『論語古今註』)

學은 앎이요, 習은 행함이다. 學而時習은 앎과 행함이 함께 나아감이다. 오늘날의 학문은 앎(學)만 있고 행함(習)이 없으므로 기쁨(悅)이 없다.

- 01 학문은 “學(지식의 습득)”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없으면 실천할 거리가 없고, 기쁨도 생기지 않는다.
- 02 “學”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習)의 기쁨(悅)을 얻으면 더 강력한 배움의 동기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실천과 기쁨을 결과할 것이다.
- 03 AI 시대, 고전인문학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
 - “지식 담론” 위주의 연구·교육에서 벗어나,
 -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 그것을 통해 만족과 자존감을 얻는 “실천적 인문학”을 오늘의 환경에 맞추어 회복하는 일.

인문학에 있어서의 “실천”이란?

학문의 내용에 따라 실천의 방법과 형태도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AI 시대에 학문적 실천이라 할 행위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일일 것이다.

01 행위자에게 기쁨을 주는 일

- 논어와 다산 주석의 문맥에서 알 수 있는 “실천”의 성격은 그것이 “悅”(기쁨)을 주는 행위라는 것.
-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성취감 · 자존감
—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의 보상.

02 AI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도로 AI를 운용하는 일

- AI는 이미 우리의 생활·연구·교육의 환경이다.
- 내가 주인이 된 상황이라면,
AI는 나의 구상과 설계를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한다.

미래의 AI: 도구에서 환경으로

01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인간은 AI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02 우리는 지금,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한다.

03 그러나,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에 당면할 문제는:

“AI 시대에도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이다.

미래 인문학의 역할

- 01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수록, 그래서 인간의 삶이 편안해질수록,
→ 인간은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동기와 의지를 잃어갈 것이고,
→ 그것이 인류의 소멸 또는 그와 다름없는 수동적 생명연장(ex. 환각 속에 사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
- 02 미래의 AI는 인간이 선택적으로 쓰고 말고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그 안에서 숨쉴 수밖에 없는 공기와 같은 존재
→ 그 환경에서도 인간 스스로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자기주도적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미래 인문학의 사명
→ “AI가 인간 활동의 많은 것을 대신하는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가 하는 문제에 대한 탐구

AGI 시대의 인문학

“AI 문명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재해석하는 활동”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탐구가 사변적인 이론으로 흐른다면 그것마저 AI의 담론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 할 일은 반드시 현실에서 능동적 행위를 하는 “실천”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실이 이미 AI 의존적 세상이라면, “AI와 동행하는 능력” 위에서만 “인간의 자기주도적 삶의 실천이 가능”

미래 인문학의 단기 미션: “AI를 가르치는 인문학”

01 AI를 가르치는 인문학이란,

— “AI가 읽을 수 있는 문화 지식 구조를 만드는 일”

— “인간 인문학자가 AI 환경 속에서 자기 역할과 주체성을 재발견하는 과정”

※ 단순히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문화 전통을 AI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데이터)로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며, AI 시대에 살아갈 인간 자신의 실천 능력을 훈련하는 과정.

※ 고전인문학이 AI 시대에 중단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AI 환경에서 유지·발전·활용될 수 있게 하는 (AI와 인간의) 상호 이해 훈련 과정.

02 왜 “단기 미션” 인가?

인간이 AI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게 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 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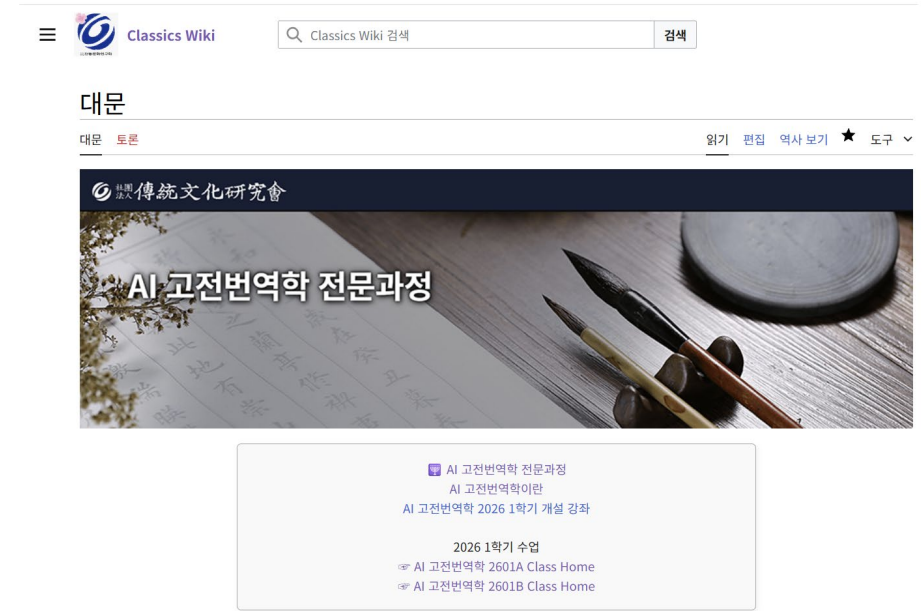
인간이 AI 환경 속에서 자기주도성을 유지하는 법을 익힐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훈련 기간일 수도 있다.

미래 인문학을 위한 실천 예시: AI 고전번역학

- 01 AI 고전번역학은,
 - 한문 고전을 단순히 현대어로 옮기는 작업을 넘어,
 - 고전 지식을 AI가 이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하고,
 - 인간과 AI의 협업 속에서 고전 인문학의 해석 전통을 계승·확장하려는 실천적 학문.

- 02 왜 “번역” 이 아니라 “구조화”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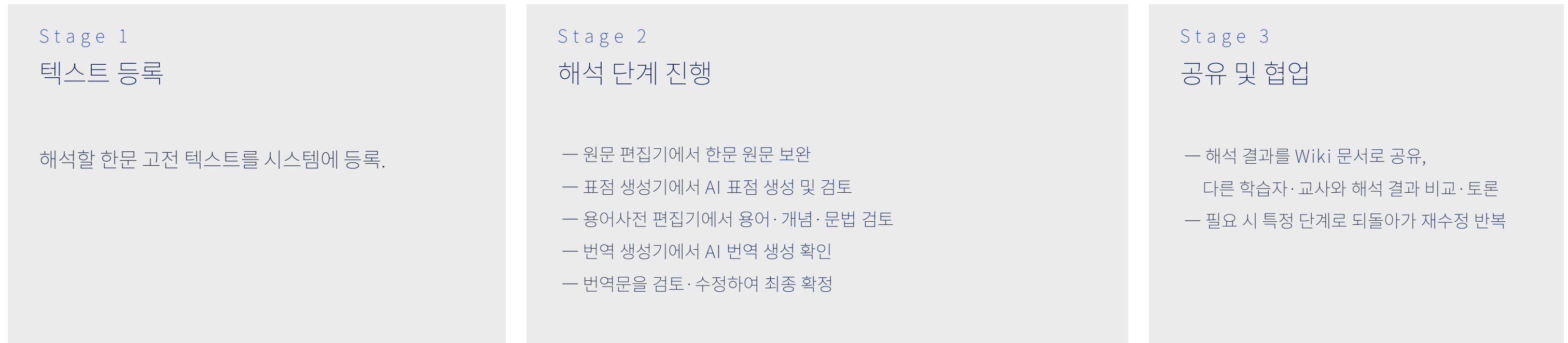
기존 고전 번역	인간 독자를 위한 결과물 생산
AI 고전번역학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지식을 구조화 (XML, Semantic Data, Ontology)
→ 효과	인간의 해석과 AI 해석 사이의 상호 검증과 이해 가능



“AI 고전번역학”의 실습 도구: CCTI(Classical Chinese Text Interpreter)

인공지능(LLM API)을 활용하여 고전 한문 텍스트의 해석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연구용 시스템.

01 CCTI 운용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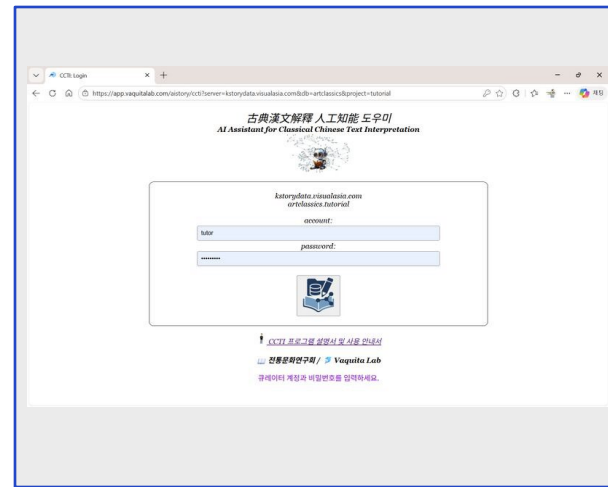


02 해석 작업 수행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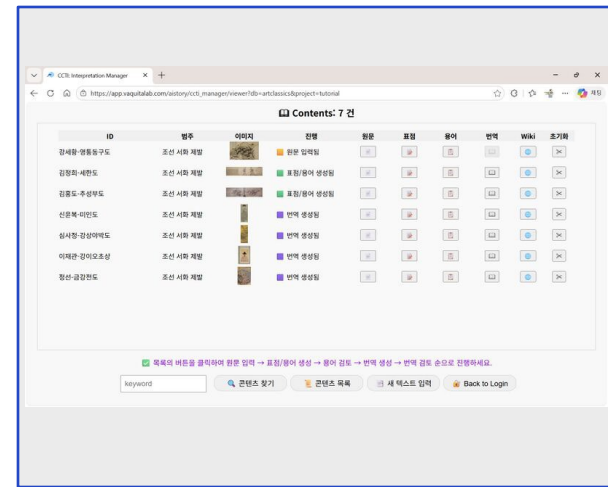
※ AI는 초안을 제공한다. ※ 학습자는 판단과 수정의 주체이다. ※ 해석 과정 전체가 데이터로 남는다.

CHAPTER 04 “AI 고전번역학”: 미래 인문학을 위한 실천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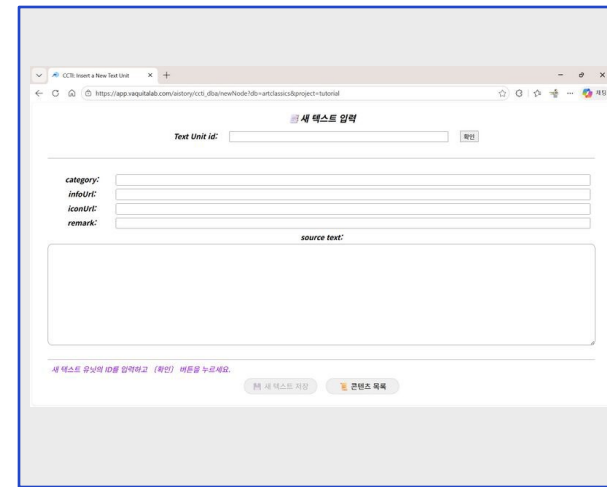
CCTI 운용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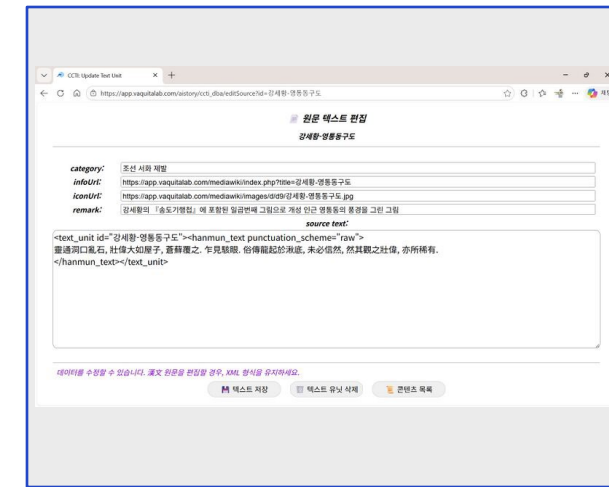
로그인



한문 해석 프로세스 관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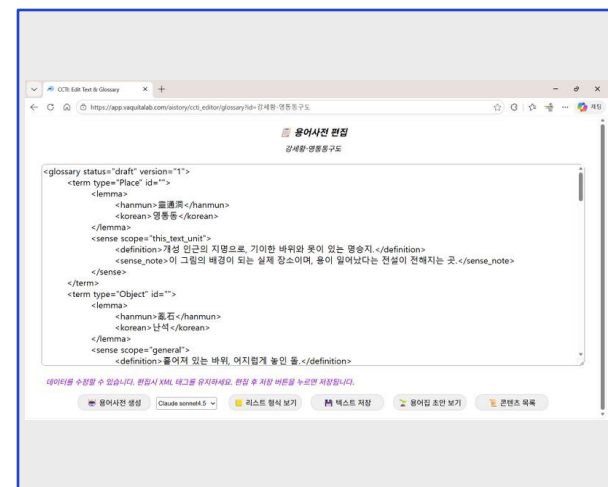
새 텍스트 입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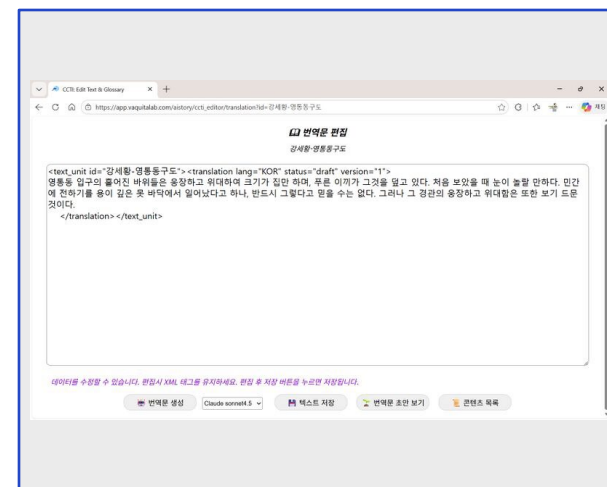
소스 텍스트 편집기



한문 표점 생성/편집기



용어사전 생성/편집기



번역문 생성/편집기

Quick Access

예시

[My CCTI 바로가기](#)

*접속 서버: kstoryhub.visualasia.com
*프로젝트 ID: T2601010

[My CCTCA 바로가기](#)

*접속 서버: kstoryhub.visualasia.com
*프로젝트 ID: T2601010

2026년 2학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AI 고전학 교육 강좌 기획

01 과목명: AI와 협업하는 불교 문화 큐레이션

- AI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불교문화 지식의 축적·검증·활용 과정을 탐구하고,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불교학 연구 역량을 함양.

02 교육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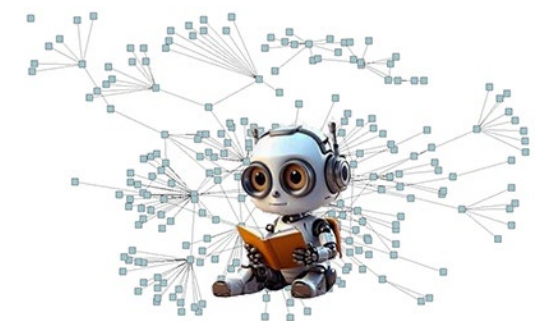
-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 LLM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Vertical AI 의 원리 이해
- 불교문화 지식의 역사적·사상적 맥락 이해, 불교학적 관점에서 AI 생성 결과를 검토·평가하는 훈련
- 한국불교 전문 AI (Vertical AI) 구축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온톨로지) 구현 실습

03 강의 운영 계획

- 협동 강의: 김현, 서소리(디지털인문학) + 불교학술원 교수진(불교학, 불교문화학)
- 강의실: 불교학술원 227호
- 수업 시수: 주1회 15주

Quick Access

예시



“AI 고전번역학”의 교육적 기대 효과

01 해석 과정 중심 학습의 정착

- 번역 결과보다, ‘표점의 타당성’, ‘용어의 정확한 의미’, ‘문맥에 따른 해석 차이’에 주목하는 훈련
-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해석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을 학습

02 비판적 AI 활용 능력 강화

- AI가 생성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검토하고, 수정하며, 근거를 요구하는 태도를 배양
-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인 “비판적 AI 활용 능력”을 자연스럽게 훈련

03 협업 기반 학습 환경 조성

- Wiki 연계를 통해 개인의 해석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공유 → 동료의 해석을 검토하며 공동으로 해석을 발전시키는 것을 도모
- 전통적인 “강독실” 환경을 디지털 협업 공간으로 확장

고전인문학자와 AI의 교학상장(敎學相長)

01 “AI를 가르치는 인문학”의 함의

— 교육은 상호 작용이며, 교사와 학생이 모두 성장하는 과정 → 교학상장(敎學相長).

02 “AI 고전번역학”은 고전인문학의 디테일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도로 재편하는 일.

— 이 일은 일차적으로 AI를 훈련시키는 것을 표방하지만,

— 고전인문학자들이 AI 환경에서 인간주도적 역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천 방법을 알게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 AI와 번역과 해석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인간이 더할 여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생성물의 디테일을 파고들수록 AI의 해석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보이고, 그것과는 다른 나의 생각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나의 해석을 구체화하기 위해 더 생각하고 더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 그 노력의 결과가 데이터로 남아 AI 지식 생성의 신뢰도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일의 중요성은 단지 “AI의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 AI가 생활 환경이면서 연구환경인 상황에서, AI에 휘둘리거나 AI를 외면하지 않고, 인간이 할 일을 찾아서 실천하는 자기주도적 삶의 훈련일 수 있다.

“AI 시대에도 인간이 고전을 공부할 이유”

- 01 AI가 모든 분야의 정보를 탐색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인간은
-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 무엇을 기억하여,
 -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 02 그리고 고전은

인간의 자기 성찰 · 삶의 방향 감각 · 자기주도적 정신을
훈련하는 검증된 교육 콘텐츠

AI 시대의 고전학자

※ 미래에도 고전학과 고전학연구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할이 바뀐다.

Past

과거의 고전학자

텍스트
해독자

Future

미래의 고전학자

01

문화지식 설계자

02

AI 해석 감독자

03

인간-AI 협업 큐레이터

04

고전 기반
Vertical AI 설계자

Closing

AI 시대의 고전 연구는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한 미래의 훈련

김현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 Digital Curator · 전통문화연구회장